

제 209호 · 2013년 6월 19일

해운·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임진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100년 역사 친황다오항 신항 이전 작업 시작
2. 카자흐스탄, 중국-유럽 연결 뉴실크로드 개통
3. 니카라과 의회, 니카라과 운하 개발사업 최종비준
4. 중국 운남성에 대규모 냉장물류창고 건설 계획

물류시장동향

1. Marks & Spencer, 런던 게이트웨이 물류단지에 물류창고 건설 계획
2. DB Schenker, 리투아니아 Lietuvos geležinkeliai 와 철도화물 협력계약 체결

공지사항

「2013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사업동향

□ 100년 역사 친황다오항 신항 이전 작업 시작

- 친황다오항(秦皇島港)은 1898년 운영을 시작한 중국의 대표적인 석탄부두임
 - 신카이강(新开河)을 경계로 구항인 서항과 신항인 동항으로 구분되며 2012년 물동량은 2.63억 톤으로 7년 연속 2억 톤 이상을 처리 함
- 물동량 처리량 증가로 인한 도시생활권 환경오염과 터미널 시설의 노후 등으로 친황다오 시정부는 신항으로 부두를 이전하는 “서항동이전” 공사를 시작함
 - 도시중심에 위치한 서항의 이전으로 45km의 친황다오 해안은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향후 비즈니스, 해양관광거점 및 친수공원, 주상복합단지 등을 건설할 계획임
 - 동항구역에는 잡화 및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하고 신항 북쪽에 린강물류단지와 린강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임
- 이번 공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 1단계는 13년부터 15년까지로 동항건설공사, 서항시설 이전 검토와 차오펬이디안(曹妃甸) 석탄 부두와 친황다오항 20만 톤급 항로준설 사업, 2단계는 16년부터 20년까지는 부두 이전 완료 예정임
- 완공 후 효율적인 석탄운송과 하역작업 생산성 향상으로 허베이항만 석탄물동량 증대 전망
 - 기존 서항은 인력위주의 노후화된 하역 및 운송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동항은 실내 컨트롤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을 지휘하여 석탄의 낭비와 친환경 항만 구축 및 생산성 향상 가능
 - 서항의 이전은 친황다오항, 차오펬이디안항, 황화종합항만구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석탄교역의 중심을 허베이로 이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친황다오시 서항 도시개발 계획 >



자료 : www.baidu.com, 2013.5.29.

자료 : www.port.org.cn, 2013.6.5.

박여진 연구원 (☎ 02-2105-2967, yjp06@kmi.re.kr)

이주호 부연구위원 (☎ 02-2105-2890, jooho@kmi.re.kr)

□ 카자흐스탄, 중국-유럽 연결 뉴실크로드 개통

- 카자흐스탄은 고대 실크로드 교역로를 따라 점차 증가하는 통과물량 확보 경쟁에 대응¹⁾하기 위해 뉴실크로드, 즉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두 번째 중국-유럽 연결 철도노선을 개통
 - 2012년 말, 카자흐스탄 제티겐(Zhetygen)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휘얼귀스(Khorgos)까지 철도 확장공사(293km)가 마무리 및 기존 철도망에 연결되어 뉴실크로드가 개통됨
 - 뉴실크로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²⁾ 화물을 중국 서남지역 충칭(Chongqing)으로 부터 독일 서부 공업지대인 루르(Ruhr)지방 뒤스부르크(Duisburg)까지 10,800km 구간³⁾을 운송하는 데 단지 15일이 소요됨
 - 반면, 12,000km에 달하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유럽까지 화물을 수송하는 데 18~20일 정도 소요되며,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45일 소요됨
 - 중국이 보장한 뉴실크로드 이용 물량은 올해 200만 톤이며, 궁극적으로는 1,5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유럽 간 철도 노선 >



자료 : www.cargonewsasia.com

1) 철도에서 통과화물 운송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추가적 비용이 없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이 통과화물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2) 주요 품목은 전자제품, 건축자재 등임

3) 중국발 유럽행 열차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를 거쳐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뒤스부르크에 도착함

- 통과화물 철도노선 운영은 빠르게 성장하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있어 주요 소득원 역할 수행
 - 국토면적으로는 세계 9위이나 인구는 1,700만 명에 불과한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원유매장량에 힘입어 중앙아시아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2년 5%의 GDP 성장에 이어 2013년에는 6% 성장에 예상됨
 - 기존에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이동하는 통과화물은 구 소비에트연방 때부터 사용되어온 도스틱(Dostyk)-아라산커우(Alashankou) 연결루트를 이용함
 - 2012년, 도스틱-아라산커우 간 노선을 통해 1,650만 톤의 화물이 중국으로 수출입 되었으며 조만간 연간 2,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 이처럼 기존 노선의 화물처리 부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신규 통과 철도노선은 기존 노선의 부하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
 - 또한 현재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집중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장래 해당 지역의 생산품들로 인해 통과화물 급증이 예상됨
 - 중국과의 제2 철도 국경역 건설로 도스틱역에 집중되던 통과화물의 분담이 가능해져 카자흐스탄이 보다 많은 통과화물을 원활히 처리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임
 - 카자흐스탄 국영 철도공사로 카자흐스탄 통과화물의 90~95%를 취급하고 있는 KTZ(Kazakhstan Temir Zholy)사는 2020년까지는 뉴실크로드를 통해 이동하는 화물이 3,500만 톤에 이를 것이고, 중국에는 5,000만 톤에 다다를 것이라고 추정함

자료 : www.cargonewsasia.com, 2013.6.13.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니카라과 의회, 니카라과 운하 개발사업 최종비준

- 니카라과 의회는 니카라과 정부와 홍콩-니카라과 개발투자회사(HK Nicaragua canal Development Investment Co.Ltd, HKND)의 니카라과 운하 개발 합의안 최종 비준
 - 합의안은 HKND에 니카라과 운하 및 항만, 자유무역지역 및 관련 인프라 개발 등 잠재적 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 건설, 운영 그리고 경영에 대한 모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HKND는 니카라과 운하 개발에 있어 니카라과 경제 발전 및 문화적 유산 및 환경보호를 위해 주요 관련 전문기업과 협력 추진
 - HKND는 2012년 9월, 중국과 니카라과 양해각서 체결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니카라과 운하개발을 추진해 오¹⁾
 - HKND는 산후안강(San Juan River)을 이용하여 운하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함
 - 또한 세계적인 환경전문 컨설팅 회사인 ERM을 통해 새로운 대안 경로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 수행 중
 - 중국 철도건설주식회사(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Ltd)가 초기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기로 함
 - 세계 최고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운하 개발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조사와 분석 수행 중임
- 400억 달러 규모의 니카라과 운하 개발 사업은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해운선사에게 보다 짧은 운송거리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규항로 제공할 것임
 - 상해에서 볼티모어로 운항 시 새로운 니카라과 운하를 이용할 경우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경로에 비해 4,000km, 희망봉을 돌아서 운항하는 경로에 비해서는 7,500km 단축이 가능함
 - 평균 선형의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하여 왕복운항 할 경우, 각각 50만 달러와 100만 달러의 유류비 절감²⁾이 가능함
 - 운항 가능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TEU 당 각각 110달러와 327달러 절감 가능함
- 또한 니카라과 운하개발은 니카라과 및 관련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
 - HKND의 연구결과, 2030년까지 니카라과 운하를 통해 이동할 무역량은 240배까지 증가할 것이고, 니카라과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동할 화물의 가치는 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임
 - PTI(Port Technology International)는 태평양과 캐리비안 해를 연결하는 이 130마일 길이의 운하는 완공까지 11년이 소요되고 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니카라과의 GDP를 두 배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3.6.14.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1)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78호 기사 참조

2) 현재 유류가격 기준

□ 중국 운남성에 대규모 냉장물류창고 건설 계획

- 운남성(Yunnan) 쿤밍(Kunming)시에 90억 위안 규모의 국제냉장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
 - 1년간의 준비계획을 통해 “쿤밍만톤농산품냉장물류센터”가 곧 건설을 시작할 계획임
 - 위치는 도로, 철로, 공항 등의 교통 노선이 편리한 “쿤밍공항냉장물류산업원” 내에 건설 할 예정
 - 쿤밍공항냉장물류산업원은 쿤밍공항경제구역의 동북쪽에 위치
 - 계획하고 있는 냉장물류센터는 쿤밍교통투자유한공사, 쿤밍공항투자개발유한공사, 우한냉장물류투자관리유한공사, 쿤밍식품그룹냉동냉장유한공사가 공동 출자하여 건설할 계획임
 - 제1단계 건설로 7만 톤 규모의 냉장창고와 28,000평의 시장공판장 및 20,000평의 종합택지 등을 건설할 예정
 - 완공된 후 센터 규모는 15,000평의 농산품가공센터, 7,500평의 건조창고, 7,500평의 가공배송물류 구역 및 주거단지와 경영에 필요한 부가시설 등을 마련할 예정
 - 건설 완료 후 연간 교역량은 200만 톤 이상으로 가공구역의 생산액도 연간 100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운남성은 지리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가까워 중국내의 냉장물류만이 아닌 동남아국가를 대상으로 냉장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목표를 가짐
 - 동남아 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 할수록 단순한 제조업 상품무역만이 아닌 신선 및 냉장 물류 산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쿤밍에서 미얀마와 태국 등지의 항만을 이용하여 냉장제품을 수출 할 경우 대상지역으로써 동남아국가 시장과 나아가 유럽시장까지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미얀마의 활발한 개발로 인하여 물류서비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12.5계획기간 중 쿤밍시의 물류산업발전의 5대 물류기지 중 하나로 쿤밍시에 있는 농산물 집산지인 안닝시(Anning)의 경제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음
- 2017년까지 완공 목표인 냉장물류센터는 운남성의 각 시별 단위의 농산품 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

자료 : www.chinawuliu.com.cn, 2013.6.7.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물류시장동향

□ Marks & Spencer, 런던 게이트웨이 물류단지에 물류창고 건설 계획

- Marks & Spencer와 DP World는 공동으로 런던 게이트웨이 물류단지에 2억 파운드 투자
 - 건설 될 물류창고는 런던에서 동쪽으로 25마일(약 40km) 떨어진 Stanford-le-Hope에 위치하며 면적은 900,000 ft²임
 - 2014년 건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본 물류창고는 영국과 해외 M&S 매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저장창고로 사용될 예정
 - 런던 게이트웨이의 인입철도는 Castle Donington에 위치한 M&S 물류창고와 연결됨
 - Marks & Spencer는 런던 게이트웨이 물류단지에 입주한 첫 세입자 임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3.6.10.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 DB Schenker, 리투아니아 Lietuvos geležinkeliai와 철도화물 협력계약 체결

- DB Schenker는 리투아니아 국영철도회사 Lietuvos geležinkeliai와의 MOU 체결로 인해 유럽에서의 철도 운송서비스를 확장
 - DB Schenker는 와 Lietuvos geležinkeliai는 이미 철도 페리서비스 운영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페리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
 - 이에 인해 DB Schenker는 2013년 초부터 폴란드-리투아니아 정기 컨테이너 철도를 주 1회 운영하기 시작
 - DB Schenker는 이 서비스를 통해 발틱국가를 포함한 동유럽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3.6.10.

고안나 연구원 (☎ 02-2105-2925, ako@kmi.re.kr)

「2013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 국내 및 해외의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분석 수행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현지시장 개척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사업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4. 지원 내용

-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국고보조금 + 자부담 matching)

조사비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비율(최대)	70%	60%	50%	1억원

< 지원 예시 >

- 타당성 조사비용이 5천만원 :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9천만원 : 최대 5천4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1억6천만원 : 최대 8천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2억2천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므로 실제로 교부되는 보조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2. 6. 7(금) 09:00 ~ 7. 8(월)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첨부 1>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첨부 2>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첨부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이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국내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회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3년 7월20일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7.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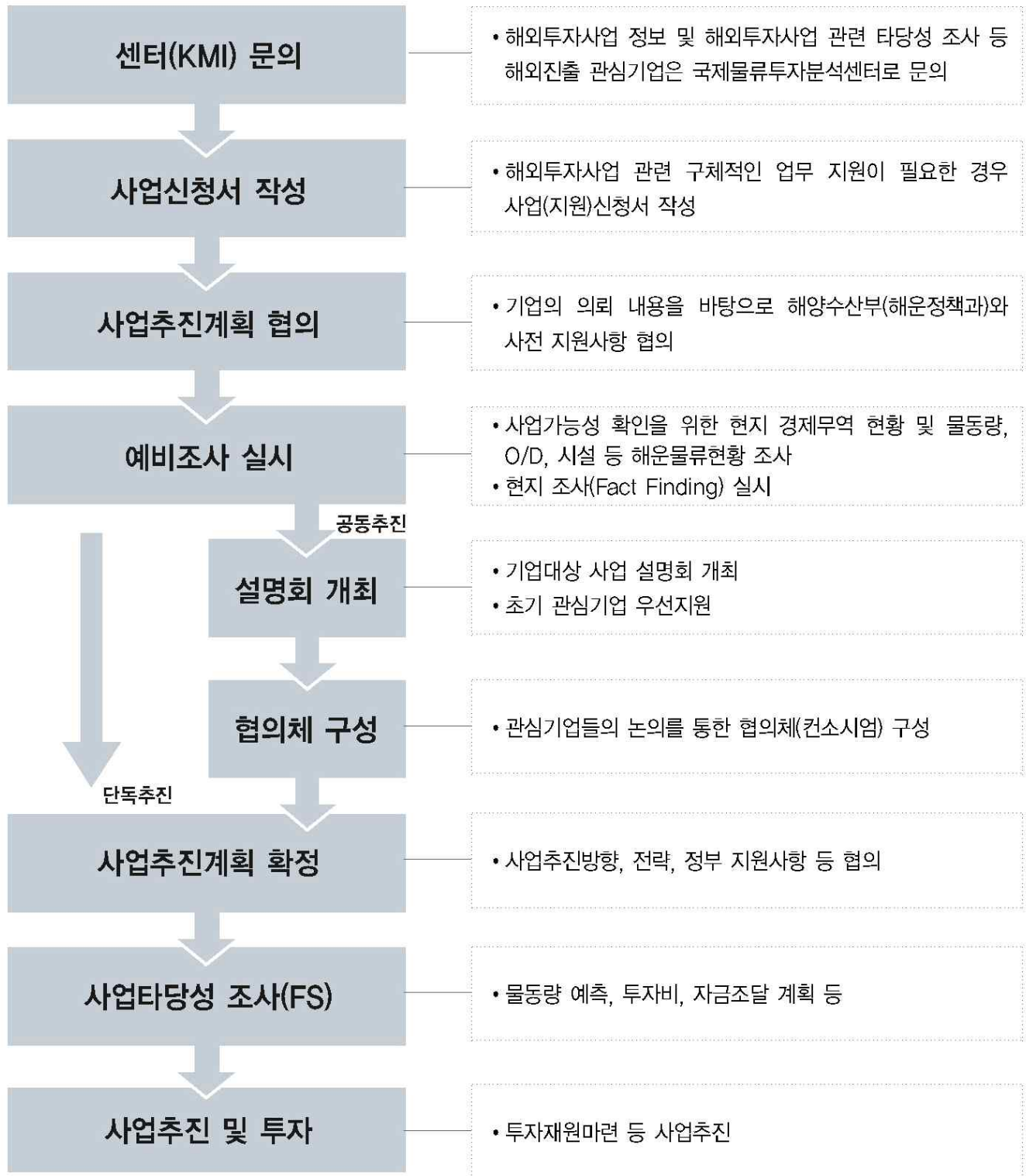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양식 1부. 끝.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